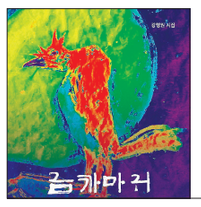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7~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 (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3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밝은 사람들 총서 14)	권석만 외 4인	운주사	8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 (홍파 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틱낫한 불교	틱낫한/권선아	불광출판사
5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10	지금 이순간 자비롭게 살아가기	아남 툽텐/임희근	담앤북스

행복 위한 불교식 마음 지혜 찾기







불교 철학적 메시지 작가 특유의 감정과 감성 담아 시어로 풀어내

시집엔 삶을 맑고 진솔하게 살고 싶은 저자 마음이 간절히 묘사돼

금까마귀 들락날락
강행원 지음/노북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평생을 화가와 문인이며 불교인으로 살아온 강행원 화백〈사진 위〉의 5번째 시집 〈금까마귀 들락날락〉이 새로 나왔다. 이 책은 화가로 꾸준한 집필 활동을 해온 강행원 화백이 그림과 함께 담백한 시어로 그려낸 시화집이다. 책 속에는 불교인으로서의 시각과 언어가 그림과 시로 잘 버무려져 있다.

한 동안 불교에 귀의해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민중 미술을 이끌고 늘 인문학을 가까이 하며, 인문화를 즐긴 화가 강행원의 삶을 시화집 형식으로 담았다. 존재의 이치를 터득하는 불교 철학적 메시지를 작가 특유의 감정과 감성을 담아 시어로 풀어냈으며, 그의 폭넓고 깊은 불교 사상과 사유에 바탕을 둔 그림도 담겨 있다.

평소 불교인이라면 불교에 이르는 진리를 생각해 보고 참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일반인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한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생과 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햇살의 뜨거움을 당당히 마주한 작가가 이제 석양을 바라보며 담담히 써내려간 글과 그림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하듯이 엮어 냈다.

한국화, 서예, 인문화 등 한국 회화(繪畵)의 전반적인 분야에 조예가 깊고 진보적인 생각을 좇아 문화 운동에 참여해 민중 미술을 이끌었으며, 특히 인문학을 가까이 한 화가의 다방면의 역작을 한 권 시집에 담기엔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가가 꼭 원하는 부분을 위주로 간추려 담았다. 시집에는 삶을 맑고 진솔하게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간절하게 묘사돼 있다. 그는 아직 맑은 웃음으로 삶을 당당하고 진솔하게 마주하고 살아간다.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붓다의 사상이 그의 삶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으며, 불교를 기반으로 한 평소의 사색 습관이 발양해 그의 예술 세계 심층엔 늘 영원성에 대한 정신 세계의 갈망이 드러난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불성으로 해석하고 특히 이 시집에서는 불자 입장서 보게 된 존재의 이치, 불교 일색의 철학적 내용에 감정을 담아 감성적 언어로 풀어냈다. 정제된 시에서는 접할 수 없던 저자만의 솔직하고 담백한 감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의 그림과 함께 붓다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마음 수행을 통해서 그간에 느낀 저자의 자유스러운 시 감성을 담담한 시어로 담았다. 부록인 사색의 상념은 세계 3대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탄생사를 한 눈에 살펴보고 작가의 눈으로 담담히 써내려간 각 종교에 대한 해석도 관심거리이다.

시문학이라는 예술 형식이 철학적 종교적인 사고에 접합돼 있다는 점 때문에 종교적 배타성을 가진 이들에겐 흥미가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그가 누구라도 종교를 가진 자 즉, 신앙하는 자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모른다는 것은 나의 종교를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고 말한다. 또한 그는 진리라고 해서 고정불변한 어떤 교리가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아니다. 우주 본체가 바로 진리임으로 따라서 진리는 과거도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이 언제나 그대로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그의 시상은 글로벌한 오늘의 문명에 우리 인류가 결합한 현대의 병이 유물주의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사상에 젖어 끝없는 물욕서 헤어나지 못함을 주목했다. 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불행에의 문제들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은 극락(천당)이 되기도 지옥을 만나기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불교를 통해서 명상이라는 사색의 길인 선사상이 집약된 선시인 점이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왜 종교를 찾고 시를 읽는가를 한번쯤 생각하게 만든다. 무위한 자연으로부터 오는 감성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마음수행을 강조한 붓다의 말씀을 한번쯤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붓다 원형 가르침 만난다



〈아함전서〉16권
김윤수 지음
운주사 펴냄
세트가 15만원

〈아함경〉은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경전이다. 따라서 후대에 가공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부처님 당시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초기불교경전은 빠알리어로 기록된 남방불교의 5부 니까야와 한문으로 번역된 북방불교의 4부 아함경 두 종류가 있다. 이들은 초기 불전이라는 측면서 당연히 서로 상응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지만, 한편으로 체제나 내용 등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근래에 니까야에 대한 번역과 관심이 늘고 있다. 그리고 니까야가 가지는 역사성과 정통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함경〉이 갖는 중요성이 폄하돼서는 안될 것이다. 〈아함경〉은 우리가 오랜 세월 사용해서 익숙한 한자로 번역되고 기록되고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의 기본 용어와 개념들, 즉 사성제 오온 육입 십이처 십팔계 연기 해탈 삼명 육통 열반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이 〈아함경〉서 정리되고 산출된 것이다. 4부 아함 중 〈잡아함경〉은 상응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들을, 〈증일아함경〉은 법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들을, 〈중아함경〉은 중간 길이의 경들을, 〈장아함경〉은 긴 길이의 경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한역 4부 아함 전체의 체제와 용어들을 통일하고,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인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상세하고 방대한 주석을 단 대역작이다.

특히 4부 아함 중 〈증일아함경〉의 번역 및 주석서는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과 치밀하고 방대한 주석이 특징이다.

〈증일아함경〉은 상응하는 〈앙굿따라 니까야〉와 대조할 때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경의 수이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경우 9,557개의 경이 수록된 반면 〈증일아함경〉은 670개의 경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로 내용이 일치하거나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들을 가려보면 150개 경 정도이다.

둘째, 〈증일아함경〉 전반에 대승불교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보살' 이라는 용어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일반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적 의미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육바라밀, 삼승, 소승 등의 용어까지 등장한다. 셋째, 〈증일아함경〉에는 길이가 상당히 긴 경이 다수 포함돼있고, 이는 대부분 본생담이나 인연담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저자 김윤수는 1951년 경남 하동서 태어나 197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부터 10년간 판사로, 1990년부터 10여 년간 변호사로 2001년부터 다시 판사로 일하다가 2011년 퇴직했다. 저서로는 〈육조단경 읽기〉 〈주석 성유식론〉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래장 경전 모음〉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500질 한정판매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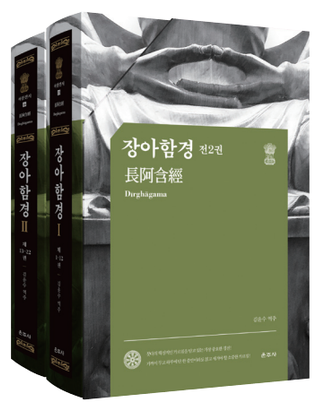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